

스포츠 계열 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학과적응의 인과관계

이계영, 김알찬
백석대학교

The Relationships of academic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and department-adapt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sports

Gye-Young Lee, Al-Chan Kim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스포츠 계열 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학과적응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스포츠 계열 전공 대학생 514명을 무작위추출 표집방법으로 추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18.0과 AMOSS v20.0을 이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이에 의한 결과기대는 학과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과적응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스포츠 계열 전공 대학생의 학과적응을 높이기 위해 결과기대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사회인지 진로이론, 학업적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학과적응, 스포츠 계열 전공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tial level of the academic self-efficacy, the expectation for academic outcome and the adaptation to the department for students majoring in sports. To meet the purpose,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a random sample 514 students who are a major in sports and analyzed. The gathered data is analyzed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SPSS v18.0 and AMOSS v20.0.

The result are as follows; The study shows that the academic self-efficacy had a statistically-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as well as the expectation for academic outcome and had a good influence to students on the adaptation to the department.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adaptation to the department shows that even though the academic outcome expectation had indirect effects, it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in statistically.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t is more important to increase the academic outcome expectation to raise the department adaptation for the students who are a major in sports.

Key Words :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Outcome Expectation, Department Adaptation, Sports Major

Received 29 December 2015, Revised 23 January 2016
Accepted 20 February 2016, Published 28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Al-Chan Kim(Baekseok University)
Email: younal@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대학교에 진학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에 관해 고민하며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생활에 대한 성공도는 전공학과에 어느 정도 적응하느냐와 졸업 후에 얼마나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느냐 하는 것이다[1].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과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전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어 학업성취도 또한 하락하게 되고 전공영역에서의 진로 설정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휴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예체능 계열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다른 계열 학생의 중도탈락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중도탈락률 차이도 다른계열에 비해 예체능계열이 가장 크게 나타났대[2]. 1997년 Osborne, Brown, Niles & Miner[3]는 학업성취의 저하와 불안과 갈등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생 2명 중 1명꼴로 졸업 후 7년이 경과해도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공별 취업 비율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대[4]. 그러므로 스포츠 계열 전공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과적응에는 개인-환경 적합성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데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이 잘 맞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환경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발휘하는 성과도 높다는 것이다[5]. 사회인지진로이론[6]은 학과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이론으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높으면 그 일에 흥미가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학과적응에 적용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학과에 만족도가 상승하며 진로결정의 확신과 진로목표의 지향성도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신감을 말하며[7], 과거의 경험, 수행능력, 목표 등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정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행동들

결정하거나 전략 사용 또는 수행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으로 자신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9].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10]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학생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11]. 또한 과제수행을 끈기있게 지속하는 경향을 나타낸다[10]. 국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2001년 김아영, 박인영[12]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1997년 Bandura[13]의 자기효능감이론을 토대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로 구분할 수 있다.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가지는 확신이나 신념의 정도를 말하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표에 비춰서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여 긍정적이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부정적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가적인 행동을 하는 자기반응에 대한 효능기대를 말하고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행동상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14]. 자기효능과 결과기대가 목표지향적이 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목표지향적인 행동은 학업이나 직업에 대하여 만족도를 높게 가져오고 결국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도록 한다[15]. 그러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과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학과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학과만족과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대[1]. 2011년 김선경, 강혜영[16]은 자기효능감이 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생하는지 검증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 흥미-학과일치도와 학과적응의 관계에서 저학년의 경우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학년의 경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전공 일치도, 자기효능감과 전공적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2011년 강혜영[17]의 논문에서도 전공적응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변인이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는 개인이 특정행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신뢰로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친대[7].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결과기대를 자기효능감과 함께 수행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1994년 Lent 등[6]은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결과기대에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가 되는 일은 선택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가 되는 일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긍정적인 학업수행의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9]. 결과기대와 학과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결과기대가 학업만족 또는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8]를 토대로 결과기대가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회인지론이론을 토대로 학과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할 수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계열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결과기대와 학과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다른 계열에 비해 학업중 중도탈락률과 취업률이 낮은 스포츠계열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계열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그리고 학과만족의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통해 스포츠계열의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과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아래와 같다.

- 가설 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정적/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2: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의한 결과기대는 학과적응에 정적/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과적응에 정적/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4: 결과기대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정적/부적 영향에 간접효과를 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무작위추출표집방법으로 서울 K대학교, 경기 Y대학교, 충남 B대학교, 강원 H대학교 스포츠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설문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거나 끝까지 완료하지 않은 설문 36부를 제외하고 총 51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통합해서 분석하였다[19].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gender	male	392	76.3%
	female	122	23.6%
school year	1st year	166	32.3%
	2nd year	138	26.8%
	3rd year	115	22.4%
	4th year	95	18.5%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학과적응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2001년 김아영과 박인영[12]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과제난이도 선

<Table 2> Stationarity Confirmation

variable	lower factor	skewness		kurtosis		
		statistic	standard error	statistic	standard error	
academic self-efficacy	level of task difficulty	-.021	.108	.538	.215	
	self-regulatory efficacy	-.075	.108	1.313	.215	
	self-confidence	.101	.108	-.307	.215	
outcome expectation	career outcome expectancies	-.222	.108	.564	.215	
	academic outcome expectancies	-.450	.108	.307	.215	
department-adaptation	satisfaction of department	major selection	-.087	.108	-.432	.215
		academic performance	-.264	.108	.300	.215
	stability of career goals	career goal orientation	-.374	.108	.214	.215
		conviction of career decision	.145	.108	2.876	.215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of Latent Variable

latent variable	route	measured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C.R	cronbach's α
academic self-efficacy($\chi^2=468.195$, $df=167$, $TLI=.914$, $CFI=.925$, $RMSEA=.059$)						
level of task difficulty	→	v1	.958	.658	14.460***	.866
	→	v4	.790	.602	13.160***	
	→	v5	1.043	.756	16.738***	
	→	v8	.991	.793	17.590***	
	→	v9	1.000	.754	-	
	→	v10	.939	.769	17.047***	
self-regulatory efficacy	→	v11	1.071	.567	9.452***	.805
	→	v12	1.209	.521	8.927***	
	→	v13	1.225	.642	10.199***	
	→	v14	1.084	.489	8.548***	
	→	v15	1.331	.677	10.507***	
	→	v16	1.173	.642	10.198***	
	→	v17	1.303	.629	10.077***	
	→	v18	1.000	.536	-	
self-confidence	→	v21	1.316	.709	13.276***	.870
	→	v22	1.025	.587	11.423***	
	→	v23	1.308	.784	14.281***	
	→	v24	1.477	.837	14.911***	
	→	v25	1.371	.817	14.681***	
	→	v26	1.000	.627	-	
outcome expectation($\chi^2=74.555$, $df=19$, $TLI=.959$, $CFI=.972$, $RMSEA=.075$)						
career outcome expectancies	→	v1	.897	.666	14.766***	.844
	→	v2	.990	.790	17.649***	
	→	v3	1.105	.796	17.765***	
	→	v4	1.000	.788	-	
academic outcome expectancies	→	v6	.984	.805	17.601***	.870
	→	v7	1.112	.870	18.764***	
	→	v8	.997	.752	16.447***	
	→	v9	1.000	.741	-	
department-adaptation						
satisfaction of department($\chi^2=98.525$, $df=19$, $TLI=.939$, $CFI=.959$, $RMSEA=.090$)						
major selection	→	v1	1.726	.819	12.615***	.846
	→	v13	1.743	.871	12.950***	
	→	v19	1.413	.779	12.300***	
	→	v32	1.000	.550	-	
academic performance	→	v3	.933	.701	14.408***	.857
	→	v15	1.291	.857	16.876***	
	→	v21	1.008	.567	11.788***	
	→	v29	1.000	.709	-	
stability of career goals ($\chi^2=105.731$, $df=19$, $TLI=.921$, $CFI=.947$, $RMSEA=.094$)						
career goal orientation	→	v5	1.705	.755	14.000***	.855
	→	v11	1.403	.870	15.005***	
	→	v17	.942	.690	13.070***	
	→	v36	1.000	.649	-	
conviction of career decision	→	v12	1.172	.743	13.847***	.820
	→	v18	1.055	.699	13.219***	
	→	v24	1.214	.805	14.511***	
	→	v31	1.000	.673	-	

*** $p < .001$

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3요인 총 28개의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결과기대는 1997년 Betz와 Voyten[20]이 개발하고 2010년 박외자[21]가 사용한 척도로, 진로결정기대와 학업결과기대 2요인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학과의 적응은 1999년 Ben-David와 Leichtentritt[22]의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2001년 박성미[23]의 척도와, 2012년 이정애[24]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과만족과 진로목표안정성의 상위요인 아래 각각 학과선택만족, 학업수행만족, 목표지향성, 진로결정확신의 각각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2.3 표본의 정상성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때 표본의 균일 분포정도 즉, 정상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χ^2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에 대해 반대급부로서 표준오차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자료처리 결과를 왜곡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측정치를 도출함으로써 표본의 정상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임계 허용범위는 왜도의 경우 ± 2 , 첨도의 경우 ± 7 로 용인하고[25], 측정결과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어 표본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Table 2>.

2.4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예비조사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cronbach'a 계수를 통한 신뢰도 검증 또한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 결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검증(cronbach'a)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적용, 각 척도의 문항들이 적합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였다.

<Table 3>과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학

과적응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문항도의 적합도는 대부분 기준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택 기준으로는 CFI(.90 이상), TLI(.90 이상), RMSEA(1.0 이하)가 가장 설명력이 높다는 주장[26][27]에 근거하여 이것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모든 변수의 표준화계수가 .4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cronbach'a 계수도 .80 이상으로 도출되어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척도는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유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2.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방법을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v18.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통계분석 프로그램 AMOS v20.0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 간에 예상되는 다중공선성 유무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변인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확인하여 통계적으로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모든 변인들 사이에서 상관계수가 .8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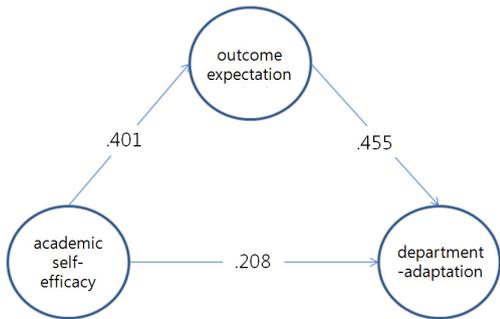
	academic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department-adaptation
academic self-efficacy	1		
outcome expectation	.396***	1	
department-adaptation	.394***	.551***	1

* $p<.005$, ** $p<.001$

3.2 연구모형 적합도

구성요소를 독립변인(학업적 자기효능감), 매개변인

(결과기대), 종속변인(학과적응)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지수 산출 결과는 [Fig. 1]과 같다. 적합도 지수의 충족 여부 평가 결과는 CFI와 TLI의 수치가 .90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또한 1.0 이하로 산출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모형의 간명성과 적합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26]. 전체 연구모형 적합도는 <Table 5>와 같다.



[Fig. 1] Research Model

<Table 5> Fitness of Research Model

	χ^2	df	CFI	TLI	RMSEA
statistic	105.124	22	.940	.901	.086

<Table 6> Results of Path Analysis

path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
1	academic self-efficacy → outcome expectation	.347	.401	.081	4.271***
2	outcome expectation → department-adaptation	1.396	.455	.227	6.150***
3	academic self-efficacy → department-adaptation	.553	.208	.181	3.049**

*** $p < .001$ ** $p < .01$

3.3 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경로 1은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401($t = -4.271, p < .001$)으로 추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가설 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정적/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경로 2는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455($t = 6.150, p < .001$)으로 추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가설 2.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의한 결과기대는 학과적응에 정적/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경로 3은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208($t = 3.049, p < .01$)로 추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가설 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과적응에 정적/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경로분석 세부항목은 <Table 6>과 같다.

3.4 간접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이후,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서의 직접효과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7>.

부분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총효과는 .390, 결과기대를 통한 직접효과는 .208, 간접효과는 .182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4. ‘결과기대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정적/부적 영향에 간접효과를 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Table 7> Indirect Effects of Outcome Expectation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academic self-efficacy → department-adaptation	.208	.182	.390
academic self-efficacy → outcome expectation	.401		.401
outcome expectation → department-adaptation	.455		.455

direct effects 53.3%, indirect effects 46.7%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스포츠 계열의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과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고자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고 결과기대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과적응 간에 간접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된 연구결과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결과기대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2011년 이정애, 최용용[9]의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포부간의 구조관계모형을 검증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12년 이정애[24]와 2007년 Lent 등[18]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과적응 간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결과기대가 학과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과적응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2012년 이정애[24]의 연구와 공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인지 요인간의 관계를 연구한 2007년 Lent 등[18]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기대는 개인이 특정행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신뢰인데[7] 결과기대에 비중을 높일수록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한 1997년 Bandura[13]의 연구 결과가 위의 결과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하여 스포츠계열 대학생들이 학과적응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과기대를 긍정적으로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과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1년 강혜영[17]의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흥미-전공 일치도와 자기효능감이 전공 적응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검증한 연구에서 흥미-학과 일치도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이 높아져서 학과적응이 향상된다는 2004년 정명화, 박성미, 신경숙[1]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계열 대학생들이 학과적응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면 자신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7]이 향상되도록 수정해주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과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과기대를 통해 학과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학업수행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러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8].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수행모델에서 결과기대가 자기효능감과 수행목표, 수행수준을 매개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수록 긍정적인 결과기대를 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수행목표와 수행수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성취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어 수행결과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6].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과적응의 상관관계보다 결과기대와 학과적응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계열 대학생들이 학과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는 개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과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결과기대를 향상시키는 간접효과가 더욱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 지도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스포츠계열 대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대하여 스스로 도전하고 자기 자신이 해결하여 긍정적인 학업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향상시키는 것이 학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학생지도에 임한다면 스포츠계열의 대학생들의 학과적응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계열 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학과적응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계열 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면 결과기대가 정적으로 향상된다.

둘째, 스포츠계열 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면 학과적응이 정적으로 향상된다.

셋째, 스포츠계열 전공 대학생의 결과기대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면 학과적응이 정적으로 향상된다.

넷째, 스포츠계열 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면 결과기대의 향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간접효과로서 학과적응이 정적으로 향상된다.

본 연구와 관련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스포츠계열의 대학생은 전국 4개 시도의 대학 중 한곳씩 총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전국 스포츠계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또 다른 지역이나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로만 설정하였으나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과 각 요인별로 미치는 상호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Myung-Hwa Cheong, Sung-Mi Park, Gyung-Suk Shin, "The Path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Major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1, pp.95-111, 2004.
- [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al Statistics Analysis Kit,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section", Beomsin, 2014.
- [3] Osborne, W. L., Brown, S., Niles, S., & Miner, C. U., "Career development, assessment, and counseling: Applications of the Donald E. Super C-DAC approach. Alexandri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7.
- [4] M. R. Kim, J. H. Min, "Choice of University Major and Long-term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14, No.1, pp.1-21, 2011.
- [5] Holland, J. L., "Making vocational choices (2nd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5.
- [6]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pp.79-122, 1994.
- [7]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8] Lee, Sang Kil,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Status across High Schoolers, Undergraduates, and Gende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Vol.21, No.3, pp.217-230, 2008.
- [9] Jeong-Ae Lee, Woong-Yong Choi,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to Career Aspiratio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Vol.24, No.4, pp.95-109, 2011.
- [10] Bandura, A. & Schunk, D. H.,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1, pp.586-598, 1981.
- [11] Schunk, D. H.,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differential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5, pp.848-856, 1983.
- [12]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9, No.1, pp.95-123, 2001.
- [13] Bandura, A.,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man, 1997.
- [14] Lee, Jeong-Gyu, Park, Choon-Sung, "A Comparative Study of Academic Self -efficacy of students in Korea and Japan.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Vol.12, No.2, pp.1-17, 2008.
- [15] Lent, R. W., "Toward a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1, pp.482-509, 2004.
- [16] Sun Kyung Kim, Hye Young Kang,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Interest Congruence to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Comparison of Grad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3, No.1, pp.175-193, 2011.
- [17] Kang, Hye-Young, "The Relationship among Interest-Major Congruence, Self efficacy and Major

- Adjustment in Science and Engineering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1, pp.115-127, 2011.
- [18] Lent, R. W., Singley, D., Sheu, H., Schmidt, J. A., & Schmidt, L. C., “Relation of social-cognitive factors to academic satisfaction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5, pp.87-97, 2007.
- [19] Yang, Mi-Sun, Kwon, Jung-Im, Yang Yeon-Suk, “The Effects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n Children’s Academic Efficacy According to Sex. Institute of Basic Science Rajeon University”, Vol.21, No.1, pp.15-32, 2010.
- [20] Betz, N. E., & Voyten, K. K.,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pp.179-189, 1997.
- [21] Park, Woi-Ja,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on Adolescents’ Career Aspiration”.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10.
- [22] Ben-David, A., & Leichtenritt, R., “Ethiopian and Israeli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effect of the family, social support and individual coping styl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30, pp.297-313, 1999.
- [23] Sung-Mi, Park, “Structural and adaptive analysis of the departmental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1.
- [24] Lee, Jeong-Ae,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o Major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pp.2329-2344, 2012.
- [25]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1995.
- [26] Song, Ji-Joon, “SPSS/AMOS Statistical Methods”, 21Century Publishing Company, 2015.
- [27] Se Hee Hong,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9, No.1, pp.161-177, 2000.
- [28] Lent, R. W., Brown, S. D.,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cognitive constructs in career assessment: A measurement guid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4, pp.12-35, 2006.
- [29] In-Ho Jung, Byung-Chul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 [30] Sook-Jeong Lee, Ye Jong Le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2, pp. 27-32, 2012.

이 계 영(Lee, Gye Young)



- 1994년 2월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 2000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대학교육, 특수체육, 대학행정

· E-Mail : gylee@bu.ac.kr

김 알 찬(Kim, Al Chan)



- 1999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학사)
- 2001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9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의학, 건강관리 운동생리학
- E-Mail : younal@bu.ac.kr